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평산신씨대중중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출 천 묘 소 033-243-2076
표 총 재 053-985-1330
옹 산 단 061-363-1495
덕 양 서 원 010-8762-7799



발 행 인 신 철 수
편 집 인 신 금 철
인 쇄 인 송 은 하



제2차 제례 · 계보위원회 개최



[문철 위원장]

전북화수회 회장 선임에 따라 대중중 규약 제3장 제8조(임원)에 의거 대중중 상임이사 세보(世譜)를 검정하기 위한 계보위원회가 5월 3일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제적위원 12명중 9명이 출석하여 심의하

였다. 회의에 앞서 공식인 제례 · 계보위원회 위원으로 근철(根澈) 宗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근철(사간공 34세)위원은 강원도화수회 부회장으로 춘천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시조 장절공 춘, 추향사시 제수 고임 등 향사를 봉행하는데 헌신하였고 대중중 대의원으로 종사에 기여하였다.

이어 대중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하신 위원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된 취지(趣旨)를 설명하고 원만히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문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말에서 대중중 규약에 준해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한 다음 문화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 설명에서 대중중 규약 제3장 제8조(임원의 선임) 제②항과 대중중 위원회 규정 제1조 제례 · 계보위원회 제③항에 의거 관련된 평산신씨대중세보(을미보)와 전자대동보, 밑직공파보(下권) 첨부된 유인물을 설명하였다.

이어 문철 위원장의 주관으로 전북화수회 총회에서 서 회장으로 선출된 신임 회장의 관련세보 유인물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원 전원

규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원장은 신임 회장에게 대중중 상임이사로서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

2024년도 전반기 전자대동보 수단 접수 현황

전반기 대중중에서 접수한 전자대동보 수단 신청 각 파별(派別) 접수현황 및 수단비 배분은 다음과 같다.

- 총 접수 인원 : 177명
- 수단 접수비 : 6,131,000원
- 배분 : 파종중 70% : 4,291,700원
대중중 30% : 1,839,300원

순위	파 별	접수일	수단자	인 원	접수비	배 분		비 고
						파종중(70%)	대중중(30%)	
01	말직공파	4.24	신호균	2	31,000	21,700	9,300	
02		4.25	신양규	20	870,000	609,000	261,000	
03		4.25	신동호	4	26,000	18,200	7,800	
소계				26	927,000	648,900	278,100	
05	문화공파	4. 1	신상준	1	20,000	14,000	6,000	
06		4.25	신준혁	1	1,000	700	300	
07		5.10	신영철	4	20,000	14,000	6,000	
08		5.10	신태주	8	20,000	14,000	6,000	
09		5.11	신철민	4	100,000	70,000	30,000	
10		5.20	신태영	4	115,000	80,500	34,500	
11		5.23	신은주	56	2,015,000	1,410,500	604,500	
소계				78	2,291,000	1,603,700	687,300	
12	정언공파	1.26	신호철	3	70,000	49,000	21,000	
13		4.23	신원식	6	141,000	98,700	42,300	
소계				9	211,000	147,700	63,300	
14	한성윤공파	2.19	신상우	13	490,000	343,000	147,000	
15	제정공파	23.12.13	신택순	2	50,000	35,000	15,000	
16	전서공파	3.20	신언구	4	139,000	97,300	41,700	
17	판사공파	4.14	신실근	41	1,920,000	1,344,000	576,000	
18	진사공파	3.13	신찬균	1	20,000	14,000	6,000	
19	감찰공파	4.12	신승철	3	83,000	58,100	24,900	
소계				64	2,702,000	1,891,400	810,600	
합계				177	6,131,000	4,291,700	1,839,300	

※ 수단 분배금은 각 파종중 계좌로 입금

제24대 대종중 회장선거 기탁금 등 정산 결과 보고

평산신씨대종중 제24대 회장선거가 2023년 3월 21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총회구성원(참석대상) 207명중 174명(84.05%)이 참석하여 제24대 회장 선거는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규정에도 없는 선거관리 위원 7명에게 직무수당 900만원을 전 선거관리위원장 주관으로 기탁금 통장에서 임의 집행하여 대종중에서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였고 결산 감사시에도 잘못됨을 지적하여 지난 2024년 6월 10일 잘못 집행된 직무수당 전액과 기탁금 잔액 그리고 통장, 도장을 대종중 사무처에 우체국 택배로 반환하여 제24대 회장선거 기탁금 등 정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게 되었다.

□ 총 세입 : ₩12,008,703원
 • 후보자 기탁금 : 1,200만원 (1인 300만원 × 4명)
 • 이자 : 8,703원

□ 지출 총액 : ₩12,426,650원
 • 선관위원 여비 : 4,569,000원
 (상임이사 여비규정 동일 적용)
 • 선관위원 식대 : 1,266,700원
 • 우편료, 인쇄비, 수용비 등 : 6,098,830원
 (홍보물발송, 장비대여, 서식인쇄 등)
 • 선관위원장 집행 : 여비(320,000원), 사무비용,
 우편료 등(172,120원)

□ 잔액 : ₩-417,947원

※ 잔액(부족액)과 총회 행사 중복 부분은 총회 예산으로 정산 처리함.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춘천 시조묘역 관리소장 퇴직 및 신규 임용



22여년간 춘천시조 묘역 관리소장을 재임하시다가 5월31일자로 퇴임하고 6월 1일자로 신규임용하는 관리소장 간담회를 6월 3일 춘천 소재 식당에서 대종중 회장, 직원과 강원화수회장(대수)과 전회장(용철) 퇴임 현택(鉉澤) 소장, 신규 임용소장 현목(鉉睦) 내외분이 모여 개최하였다.

신임 현목 소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후, 대종중 회장은 22여년간 시조님의 묘소 수호와 춘,추향사 봉행, 관리에 헌신 봉사하신 현택 소장 내외분을 격려하고 새로 임용된 현목 신임소장 내외분에게 묘역관리 에 성심을 다 해주길 당부하였다.

신승겸장군 유적지 문화재 보존활동 "대구 표충재에 포도대장이?"



대구시 동구 지묘동 신승겸장군 유적지(대구시 기념물제1호) 표충사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승겸장군 유적지 문화재보존활동"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동선 회장]

본 활동은 대구 동구청과 표충재중이 노인공익활동 협약을 체결하여 근무지를 신승겸장군 유적지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문화재보존과 홍보활동 및 신승겸장군유적지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

무자 전원에게 대구시 문화해설사가 표충사는 위왕대 사하신 신승겸장군의 순절지임과 유적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표충재 경내에 근무복장은 옛 포도청 관원의 복장인 쾌자녀설(포졸복, 모, 신발)을 착용하고 홍살문 2명, 순절단 출입문 좌우 2명, 재실입구 1명이 초병 근무를 하고, 문화재보존 및 정화활동 근무자 5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단체 탐방객이 많은 유소년층에게는 깜작 이벤트가 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종보 구독, 주소변경 : 02-776-6151, 6111

경백사 춘향제 봉행



지난 4월 23일 (음력 3월 15일)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 마을 소재 경백사에서 고려태사 장절공 신승겸장군, 신현, 이색, 원천석 선생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춘향제를 경백사 회장 (신현권)이 주관하

여 부산, 창원, 거창, 진주지역 화수회 임원들과 사천향교 유림, 지역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제하였다.

제례 분정은 초헌관 정대환 사천시문화원장, 아헌관 신창열 부산·경남화수회장, 종헌관 신기일전 창원 화수회장, 집례 김형규 유림, 축관 강기성 유림이 각 분임을 맡아 충무유사 현배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 봉행 전에 용현면 지역에 거주하는 최근수 전 용현면 노인회 분회장으로부터 경백사에 장절공 시조님을 비롯한 세분이 배향(配享)된 연유가 기록된 고서(7권)를 기증받고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회장은 감사패를 전하면서 이 자료는 경백사 영구 보존자료로 수백년 동안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한 100년사를 정리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진 전시를 통해 2026년 경백사 창건 100주년이 되는 기념행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번 춘향제를 통하여 고려의 개국공신이신 시조님의 충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후손들이 계승하고자 다짐하는 모습에서 평산신씨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율리사 향사 봉행

2024년 4월 23일(음3월 15일) 온수감공과 종중 회장 상우(相雨 35세)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 율리에 있는 율리사(충남 지방문화재 제303호)에서 본손 3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히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분정은 초헌관 규철, 아헌관 영우, 종헌관 봉섭, 독축 광섭, 좌집사 철호, 우집사 중섭 宗이 각각 소임을 맡아 두순 상임이사 집례의 창홀에 따라 정당 7위의 신위전에 분향, 헌작과 독축 재배를 행한 후, 망료례, 음복례로 제향을 예필(禮畢)하였다.

상우(相雨)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각지에서 참여하여 주신 종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로



[상우 회장]

우애를 돈독히 하여 종중 발전을 위해 모두 협력하자고 당부하고 성원해 주시는 대종중에도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과 일터마다 복이 임하시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온수감공 파조의 휘(諱)는 기(淇) (1365, 공민14~1393, 태조1)이며 14세휘 혼(璿)의 3男으로 자(字)는 의오(漪吾)이며 고려조(高麗朝) 공양왕(恭讓王) 때, 온수감(溫水監)을 지내셨고 고려 개국공신이신 시조 신승겸 장군의 후손으로서 결의를 지키고자 아버지 한림공 휘 혼(璿)과 형님 대제학공 휘(諱) 연(演)과 3부자(父子)가 두문동에 들어가 순절(殉節)의 길을 택하시니 당시 연세가 28세였다.

온수감공 묘정에서 향사 봉행



4월 13일(음3월 5일) 충남 서천군 서면 율리 온수감공 휘 기(淇)의 묘정에서 30여명의 본손 제관들이 향사를 봉행했다.

향사일을 통문을 받은 후손들은 오집사(삼헌관, 축, 집례)를 선임하여 망

지(望紙)를 보내고 향사 당일 묘정에서 집사분정(執事分定)을 홀하고, 초헌관 충식, 아헌관 상찬, 종헌관 철호, 집례 두순, 축 광섭, 좌,우집사 동득, 상식 宗이 각 분임되었다.

제관 일동은 두순 집례의 창홀에 따라 알자는 초헌관을 안내하여 진설된 제수를 점시하고, 강신례, 초헌례, 독축,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사신례 후 알자가 초헌관에게 예필(禮畢)을 고하였다.

상우(相雨) 회장은 참제하신 후손과 향사 준비에 수고한 분들께 감사하고 당면한 제반 중사와 관련한

토의와 의견을 듣고, 경섭 총무의 공지사항을 전하고
오찬을 나누며 친목의 우의를 다졌다.

전서공파종중 향사봉행 및 정기총회



[동석 회장]

4월 28일 11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만물이 소생(甦生)하는 계절에
경기도 가평 청평면 상천리 소재 무
주동 불기산 전서공 파조 휘 호(灝)
제단에서 30여명의 후손들이 모여
향사를 봉행 했다. 향사 분정은 초

현관 현익(鉉益), 아현관 현섭(鉉燮) 종현관 관철(寬
澈) 대축 동석(東錫) 회장, 좌, 우집사 인철(仁澈) 명
석(明錫)과 참석한 후손들은 현화(鉉和) 총무의 집례
로 창홀에 따라 강신례를 시작으로 경건하게 향사를
봉행했다.

공개서는 조선이 건국되자 관직을 버리고 초야에
문혀 학문과 덕행을 쌓으며 지조를 지켜냈고 두문동
서원과 동양서원에 배향되었다.

묘소는 황해도 연백군 과곡면 생금리에 있으며 이
곳 가평 단(壇)에서 매년 양력 4월 마지막 일요일에
향사를 봉행한다.

동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남원 성남문중에서
많이 참례하셨지만 이번에 사정이 있어 오시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며 인근 문중에서 30여분이 참석해 주
서 감사하다고 하였다.

제가 아들 며느리를 동행시킨 것은 여러 종친께서
도 봄 나드리 하듯이 가족을 동반하여 많이 참석해주
시라는 마음이며 모든 종원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이어 총회를 개최하고 총무의 업무보고 후, 동휘
(東輝) 감사의 감사보고와 종무 현안에 대한 전반적
인 의견과 덕담을 나누며 총회를 하였다.

문희공 국가표준영정 제작 기념비 (文僖公 國家標準影幀 製作 記念碑)



[문희공 국가표준영정 제작 기념비]

공의 휘(諱)는 개(槩)요 자는 자격(字格) 호는 인
재(寅齋)·양졸당(養拙堂)이다. 공은 세종조(世宗朝)
좌의정(左議政)으로 명망(名望)있는 재상(宰相)으로
세종묘정(世宗廟庭)에 배향(配享)되었으며, 1446년
에 세종대왕(世宗大王)이 문희(文僖)란 시호(諡號)를
내리니 근학호문왈문(勤學好問曰文)은 학문(學問)에
부지런하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소심외기왈희(小心畏忌曰僖)는 조심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희(僖)라 하였다.

공은 대대로 물려내릴 가훈(家訓)으로 언충신(言忠
信), 행동경(行篤敬), 소심익익(小心翼翼), 대월상제
(對越上帝)를 정하여 가르쳤다.

2008년 10월 28일 상임유사회의에서 현만(鉉
晩) 부도유사 겸 총무의 제안으로 문희공 영정(影幀)
을 제작(製作)하기로 결의하고 영정제작추진위원장은
봉식(鳳湜)도유사, 제작실무책임자로 현만(鉉晩)
부도유사 겸 총무를 선임하였다. 문희공 영정제작은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 자료
를 바탕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문희공(文僖公)은 73세에 졸(卒)하여 영정(影幀)
나이는 60대로 설정하였으며 영정의 용모(容貌)는
충명(聰明) 청수(淸水) 단정(端正) 엄숙(嚴肅) 강과
(剛果) 성인(聖人)의 모습으로 맑고 사념(邪念)이 없
으며 용모(容貌)가 단의(端毅) 하며 탐욕(貪慾)이 없
고 문학성(文學性)이 있으며 임금에게 간(諫)하는 강
직한 신하의 모습에 더하여 후손들의 영정(影幀)과
사진(寫眞)을 참고하여 눈썹, 수염 모양, 인상(人相)
특징(特徵)을 반영(反映)하였다.

복식(服飾)은 관복(官服)으로 홍단령(紅團領) 사
모(紗帽), 서대(犀帶), 흑목화(黑木靴) 등을 갖춘 상
(像)을 반영(反映)하였다.

〈세종 26년 7월 2일 우의정(右議政) 신개(申槩)에
게 사단령(紗團領)을 하사(下賜)하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문희공에게 옷을 하
사하고 중국의 제도에 따른 것이니 경(卿)이 수상(首

相)으로서 항상 이 옷을 입어서 관원(官員)을 인도(引導)하라고 하였던 당시 제복 착용 기준도 추정(推定)하였다.

문희공 영정은 15세기 초기 전신관복(全身官服) 초상화(肖像畵)로 자세는 좌안공수자세(左顔拱手姿勢)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이며 배경은 없으며 문무를 겸비한 조선초기문신정품상(朝鮮初期文臣政稟像)으로 결정하였다.

서울대학교 동양화 박사 박서림(朴瑞林) 작가를 선정하고 국가표준영정(國家標準影幀)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을 시작한지 5년만인 2013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17차 영정심의위원회(影幀審議委員會)의 심의에서 국가표준영정 92호로 지정받았다.

국가표준영정 제작은 문중과 종원들의 헌성금으로 충당하였다.

특히 문경 봉식(鳳湜) 도유사와 사천 현유(鉉有) 상임유사 두 분의 노력이 지대하였고 그 외 수많은 문중과 종원 여러분의 헌성금이 답지하였다.

기념비 준공일 2023. 11월 13일

문희공 국가표준영정제작 실무책임자 문희공파종중 부도유사 현만 찬

(文僖公 國家標準影幀製作 實務責任者 文僖公派宗中 副都有司 鉉晩 撰)

문희공 국가표준영정 추진위원장 문희공파종중 도유사 봉식

(文僖公 國家標準影幀製作 推進委員長 文僖公派宗中 都有司 鳳湜)

제23회 申사임당 추모제



산이 겹친 내 고향은 천리이언만 자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 송정가에 외로이 뜬달 경포대 앞에 한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위로 흩어졌다 모이고 고깃배들은 오고 가리니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아가 색동옷 입고 앉아 바느질할고.

사임당께서 어버이를 그리며 지은 詩가 가슴에 와



임당 추모제가 봉행되었다. 추모객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국민의례에 이어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예림회 회장(류연교)은 각계 각층의 내빈을 소개하였다.

신사임당추모제전 류연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겨레의 어머니시며 한국여성 사표(師表)이신 사임당은 향한 존경과 그리움을 마음에 담고 그 숭고한 인품과 예술혼을 기리고자 한다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능력있는 여성 리더가 문향과 예향의 고장 강릉에서 많이 배출되길 소망하면서 추모제를 맞아 높은 뜻을 기려주길 바란다” 하였다.

초헌관(원현순 강원도지사 부인)은 추모사에서 사임당은 자녀교육과 부덕을 갖춘 “강원 여성의 얼”의 대표 인물이며 깊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자질을 조화롭게 육성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조선시대 최고의 사상가로 율곡 이이 선생이 성장하였고 한국여성의 자아를 실현한 선구자로 온 국민의 자랑이며 긍지라고 회고하였다. 우리나라 유일의 제례를 진행하는 제헌관은 초헌관 원현순(강원도지사 부인) 아헌관 김은희(강릉시장 부인), 종헌관 김진희(강릉시 국회의원 부인) 제집례 최미선(제전부회장), 대축 이금재(제전 총무) 찬인 신중숙(제전 재무), 판진설 김미경, 봉향 김순남, 봉로 안현주, 봉작 이상희, 전작 김연희, 알자 박소원 제전위원을 각 분정하고 집례의 창홀에 따라 알자가 초헌관에게 근구청(謹具請) 행사를 시작으로 예필(禮畢)하고 각계의 분향 순서로 평산신씨 대중중 회장 철수, 고문 동은, 문화국장 금철, 강원도화수회장 대수, 총무 현목 순으로 분향, 재배 하였다. 특히 예림회에서는 해풍을 맞고 편 진달래를 따서 담근 두견주를 제주(祭酒)로 올리고 제물(祭物)은 일주일 전 약과, 다식, 전, 편, 채, 등, 전 회원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물을 고임하여 신위전에 진설하고 제례 봉행 후,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다과상을 차려 참배객들이 음복하였다. 추모제 전 10시 율곡연구원(원장박원재 철학박사)이 주관하는 신사임당 얼 선양을 위한 사임당주간 및 개막식 “봄, 물들이다” 전시회 개막식을 오죽헌 율곡기념관 앞에서 열고 조선 중기 시인이자 화가로 독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임당의 얼을 재 조명하고 현대적 활용가치를 발굴하는 현재의 사임당 얼 선양을 위한 작품들을 5월 27일까지 전시 관람하도록 하였다.

제56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5월 13일(월) 전통나무들이 푸르게 어우러진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고 정자, 연못이 있는 전통양식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남산골의 화창한 봄날 한옥 마을에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최, (사)한국여성소비자 연합 문화예술부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신사임당 예능대회가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1969년 7월 1일 경복궁에서 제1회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신사임당 탄신 520주년을 맞는 금년 제56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4,300여명의 숨은 남·여 예술인을 발굴하고 그 예술성을 개발해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을 재현해오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남성 서예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율곡과거장을 추가하여 남성 서예인들이 참여하여 회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매년 대한민국 여성의 귀감이 되는 한 분을 “신사임당象”으로 추대하여 덕과 열을 높이고 있다.

오전 9시 본회 김천주 이사장과 예능대회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을 거행하고 오순록 목향회 초대작가 회장의 개회선언, 국민이례, 사임당 노래를 제창하였으며, 김천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임당은 엄격한 유교의 가정교육과 봉제사, 접빈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엄격한 자녀교육을 통해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어진 어머니로서 살아오신 분이라 회고하고 예능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예능대회에서는 시, 시조, 수필, 동시, 동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민화, 자수 등 9개 부문에서 약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각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예능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가훈 써주기, 민화로 나만의 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2부 행사에는 평산신씨대종중 신철수 회장 및 내빈들의 참여와 주악 연주를 시작으로 역대 사임당과 목향회 클럽 회원들이 손을 잡고 붉은 카펫을 밟고 입장을 한 후, 특별행사로 인강 신은숙씨의 서예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일반시민과 내빈,

외국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오전에 치러진 예능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문정공 휘 흠(欽)춘향제 및 정기총회 개최



지난 4월 14일 (매년 4월 둘째주 일요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검옥동 자좌(子坐) 묘역에서 문정공(文貞公) 춘향제를 엄숙히 봉행 하였는데 이간공(夷簡公)과 참봉공(參奉公)의 회장과 총무, 고려대학 사학과 역사학부 대학원생과 성균관 유림(儒林) 다수가 참제하여 춘향제를 뜻깊게 하였다. 초헌관은 동규(東奎)박사, 아헌관, 달수(達秀), 종헌관 동혁(東赫), 독축 상촌송모회장 동주(東宙), 좌집사에 동혁(東赫), 우집사 동환(東煥) 형제, 산신제관과 축관을 겸하여 봉행하였다. 대종중 현기(鉉基) 전총무국장이 참례하여 더욱 뜻 깊은 제례를 예필(禮畢)하였다.

더욱이 이날은 어머니와 부인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과 3형제가 동반 하여 참석하는 친목 화합의 장이 되었다.

상촌(象村) (휘 흠)께서는 21세에 대과에 급제하였을 뿐 아니라 제(弟), 자(子), 손자(孫子)에 이르기까지 9식구가 대과에 급제하신 가문으로 벼슬이 인조조(仁祖朝)에 영의정(領議政)에 이르셨으며 조선 중기 4대 문장가의 한 분으로 상촌집(象村集) 등 수많은 저서(著書)를 남기시었다.

더구나 생전에 집필하셨던 평산신씨 족보를 선조(先祖)의 사위이자 큰아드님 동양위께서 왕실 금속활자(王室 金屬活字)를 이용하여 1636년 인조 14년에 최초로 우리 평산신씨족보인 병자보(丙子譜)를 만드신 위대한 선조이시다.

문정공의 묘역에는 증 정경부인 전의이씨(贈 貞敬夫人 全義李氏)가 부좌(附左)되어 있고 묘표, 상석, 향로석, 혼유석, 장명등(墓標, 床石, 香爐石, 魂遊石, 長明燈) 각 1기와 금관조복형(金冠朝服型)의 문인석, 망주석 각 2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묘역 동남쪽

200m 지점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145호인 상촌신도비(象村神道碑)가 있는데 이수, 비신, 구부(螭首, 碑身, 龜趺)로 갖추어 있으며 신도비명(神道碑銘)은 1633년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가 짓고 심열(沈悅)이 글씨를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篆)하였다.

춘향제가 끝난 후 열린 정기총회에선 오리보쌈을 곁한 정갈한 식사로 참석자들을 위무하였다. 신임 동구 도유사는 용인 출신으로 조선시대 단 한 대의 조상도 벼슬에 나가지 못한 이 없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육촌이내 2명의 국회의원과 장, 차관. 이십여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한유서 깊은 용인 집안 출신으로 부친은 충북도립병원 부원장 재임시 충북에 거주하는 중원이 병원을 이용할 때 편의를 주기도 했다.

상촌공중중 동구도유사는 건국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시의회 비서실장, 자유총연맹 운영위원장,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장과 교수를 겸임하면서 다방면에 활동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중증과 평산신씨의 자랑스러운 인재(人才)이다.

제432주기 팔천고훈 위령제



팔천고훈위령제는 조선 선조25년(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옥쇄작전(玉碎作戰)을 감행한 충장공 신립(1546-1592)장군과 김여물(1548-1592)부장을 비롯해 8천여 명의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위국과 충절의 뜻을 받들기 위한 제432주기 위령제가 6월4일(음력4월28일) 오전10시에 충주시 대문산 탄금대 충혼탑 옆 위령탑에서 봉행되었다.

충주문화원(원장 유진태)이 주최하고 충주시, 국가유산청, 충주교육지원청, 육군3105부대, 평산신씨대중중, 순천김씨대중회가 후원하였다.

이날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팔천고훈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충주시 우륵국악단의 장엄한 제례 악에 맞춰 조길형 충주시장과 국회의원(이종배), 충주경찰서장(목성수), 충주시 재향군인회장(안영석) 각계와 신립장군의 후손

인 문희공과 충장공중중(20여명), 충주화수회(20여명), 김여물 부장 순천김씨 후손회 순서로 헌화, 분향에 이어 충주시문화원장, 충주시장, 국회의원의 추념사, 추모 헌시 낭송 등의 순서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팔천고훈위령탑은 높이 15m, 기단부 지름 18m 규모로 2003년에 건립되었는데 탑신 상단부의 혼(魂)불은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의 뜻을 상징하고, 하단은 신립 장군과 4인의 군상으로 최후를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은 호국 충절을 상징하고 있다.

평산신씨대중중(회장 신철수)은 매년 추모 화환을 헌화한다

신립(申昶) 장군은 1546년에 태어나 22세에 무과에 급제된 뒤 여진족을 두만강 건너 소굴까지 가서 소탕하여 함경북도 병사에 이어 평안병사에 이르는 등 그 용맹함을 인정받았고 46세에 임진왜란을 맞아 8,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2만5000의 군대를 맞아 격전을 치르고 장렬히 산화했으며, 탄금대 북쪽 남한강 언덕의 “열두 대”는 신립장군이 전쟁 때 12번이나 오르내리며 활줄을 물에 적시어 쏘면서 병사들을 독려해 싸운 곳이다.

해공 선생 68주기 추모식 묘전에서 엄수



해공 신익희 선생은 1956년 3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5월 3일 한강백사장에서 30만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유세로 국민과 당원들이 승리의 기대가 넘친 가운데 5월 5일 호남지방 유세차 내려가던 열차 안에서 새벽 5시 뇌출혈로 급서하신 해공 선생은 당시 63세였다.

5월 5일 11시 68주기 추모식이 수유리 묘전에서 15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김충환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이 주관하고 신동호 기념사업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해공 신익희 선생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후 유일호 전 부총리의 해공 선생 약력보고와 기념사업회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김충환 기념사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생의 집안은 신승겸, 신립 장군의 후예로 충절과 상무정신을 중시하는 무인전통을 가지고 고조부에서 부친에 이르기까지 대과 급제 고위 공직을 지낸 학문이 높은 선비들이 많이 배출된 문무를 겸비한 집안으로 19세에 와세다 대학 정치 경제학부에 입학하고 25세 때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법률상업학교 교수가 되었다. 이후 상해 임정과 연계하여 3. 1운동을 조직하였고 최남선 등과 함께 「기미독립선언서」를 초안하고 제2차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등 민족과 민주주의와 국민복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였고 이상적인 정치가였으며 우리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로 존경받고 미래 정치 지망생의 사표가 될 위대한 분으로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는 후진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계간(季刊)으로 선진정치 시사전문지 해공정신 창간호를 선생의 영정(影幀) 앞에 봉헌(奉獻)했다.

이어 정계를 대표하여 경기도 광주을 22대 국회의원 안태준 당선자, (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문무일 사무총장, 서울지방보훈청 남궁선 청장, 국민대학교 정승렬 총장, 가족을 대표한 신익희 선생님의 종손 신학영님의 추모사가 있었다.

이어 신학영 해공선생 장손 및 유족 일동을 비롯한 각계대표들, 평산신씨대종중 직원, 종원들 일동에 이어 일반 추모객들의 분향 헌화가 있었다. 평산신씨대종중은 회장(신철수)의 대형 조화가 헌화되었다.

대한통의부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 동천 신팔균 장군·임수명 여사 제100주기 추모식



7월 2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국가보훈부, 광복회, 순국선열 유족회가 후원하고 “동천 신팔균 장군·임수명 여사 제100주기 추모회”

주최로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영전(靈前) 좌, 우에 광복회장, 순국선열유족회장, 평산신씨대종중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의 화환이 헌화되고 단하에는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인천시광복회(계양, 연수구, 서구), 후손 중중의 화환이 헌화되었다.

이날 행사는 신영우(전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국립 서울현충원의장대의 조총이 발사되고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장군 내외분의 묵념에 이어 서울지방보훈청장 남궁선,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대리한 이규중 사무총장이 추모사와 분향 헌화가 있었다. 참석 내빈은 서울지방 보훈청장(남궁선)과 인천시광복회 지부장(이완석) 각 구지부 광복회와 유관단체, 순국선열유족회장(이동일) 전 독립기념관장(이준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이항중), 김경천 장군 증손녀, 월곡고려인 문화관장(김병학) 등과 평산신씨대종중 회장(신철수), 서울시화수회장(신정용), 후손 승지공종중, 충헌공종중, 평주부원군 종원 다수가 참여하여 장군 내외분을 추모했다.

신팔균 장군의 본관은 평산(平山) 호는 동천(東川) 충북 진천 출신으로 1882년 5월19일 서울 정동에서 탄생하였다.

장군의 가문은 역대로 명성을 떨친 위인들이 배출되었고, 시조는 고려개국공신 장절공 신승겸이요, 세종조의 좌의정을 역임한 문희공 신개(申槩), 선조조의 병조판서를 역임한 충헌공 신잡(申穰)이 장군의 선조(先祖)이시다.

고조 28세 홍주(鴻周)는 순조조에 훈련대장과 평산신씨 대종중 도유사(1813)로 재임하시고, 조부 30세 헌(櫛)은 고종조에서 병조판서를 거쳐 판증추부사로 재직하시고 대종중 도유사(1873년)로 종사에 기여하셨다.

부친 석희(奭熙)는 경무사, 한성판윤으로, 백부(伯父) 정희(正熙)는 어영대장, 순무사로 한결같이 나라에 공(功)을 세웠다.

장군은 선조의 충절을 이어받아 구국의 뜻을 품고 육군무관학교에서 수학 후, 대한제국 육군 장교가 되었다.

1907년 일본이 대한군대를 해산함에 장군은 울분을 삼키며 진천군 이월면 논실로 귀향하여 이월초등학교 전신인 사립보명학교를 동생 필균(弼均)과 함께 운영하였다. 그 후, 대동청년당을 조직하고 의병과 연락하며 활동하던 중 경술국치(1910)로 조국이 비운을 맞게 됨에 비분강개하여 이듬해인 신해년(1911)에 왜적의 회유와 압력을 뿌리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수시로 국내를 왕래하며 만주, 북경, 상해, 시베리아를 전전하면서 신채호, 박은식, 신규식, 이시영, 조소앙, 조성환 지사를 만나 구국방안을 논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주에서 무오독립선언에

참여하였고, 장군은 서로군정서와 신흥무관학교에서 김경천, 지청천 장군과 함께 교관으로 근무하며 남만주의 삼천으로 불리며 활약하였고, 대한통의부 군사위 원장과 사령관을 겸임하며 수십차례의 전투에서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던 중 동변도운으로 부임한 중국인 친우 병극 장군으로부터 만나자는 밀신을 받고 1924년 7월 2일 약속장소인 흥경현 이도구에서 왜적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의 습격을 받고 순국하니 양년 43세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임수명 여성독립운동가

여사는 1894년 2월15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8세(1912)에 서울 모병원 간호원으로 있던 중 왜경에 쫓겨 환자로 가장하여 입원 중이던 신장군과 인연이 되어 애국사상이 투철하던 여사는 장군을 돕기로 하고 1914년 개성에서 결혼하였다.

그 후 신장군은 만주로 재망명하고 임여사는 개성에 있으면서 장군의 서신이나 비밀문서 등을 장군의 동지인 서세충, 김유식, 엄익승 지사에게 전달하였다.

1921년 장군은 게릴라전에 필요한 일군의 군용 지도를 입수하기 위하여 귀국하였다. 여사는 장군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통의부 단원이 되어 독립군의 뒤바라지에 진력하는 등 남편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만삭인 여사는 귀국하여 사직동에 거주하던 중 장군의 순국(1924.7.2) 비보를 듣고 남편을 잃은 슬픔과 생활고로 1924년 11월 2일 음독 순절하였다.

정부는 임수명 여사의 공적을 기리어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서울특별시화수회 제53차 정기총회 개최



[회장 정용]

5월31일(토) 11:00 서울 종로구 수표로 소재, 황후궁 2층에서 제53차 서울특별시화수회 정기총회가 대중중 철수 회장을 비롯한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정기

총회에 상정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회계결산 건 승인, 2024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 건과 화수회 규약 일부 개정안 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의장(화수회장 정용)은 인사에서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수회 규모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화수회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향후, 이를 위한 화수회의 체질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본 회 회장단 및 임원은 2024년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5개 예하 구 화수회(區花樹會) 현장을 두루 찾아다니며 구 화수회 회장단 구축 등 본회와 구 화수회간 유기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대중중 회장(철수)은 격려사에서 서울특별시화수회 총회를 축하하고 이렇게 성원해 주신 마음으로 화수회장을 중심으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화수회가 활성화 되길 기원하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다음 행사에 1명씩을 더 모셔 오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고 하고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제54차 부산,경남화수회 총회



고려태조 장절공 신승겸 장군 순절 1097주년 2024년 향기로운 꽃향기가 퍼지는 계절에 대중중(회

장 철수)을 비롯한 각계에서 보내온 화환이 행사장에 진열된 가운데 벽면에는 ‘고려 태사 장절공의 존영’과 도이장가 대형 플래카드가 걸린, 4월 27일 토요일 11시 제54차 부산·경남화수회 정기총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9 해암 뷔페 룸 9층 대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식전에는 창열 회장의 재임 1년간 춘천 시조 춘향제 아현관을 봉헌하면서 창원에서 버스를 임대하여 참배하는 종원과 영,호남지역 화수회 종원들과 화합하고 노력하는 PPT 동영상과, ‘도이장가를 읊조린다.’

와 지난 2월 29일, 3월 1일 양일간 대구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린 “팔공산과 신승검 장군” 스토리텔링화 뮤지컬 ‘골든 마스크’ 공연 상영에 이어 상규 수석 갑사가 향시 ‘도이장가’를 낭송하였다.

상운 사무총장 개회사와 국민의례 후, 회의가 진행되고 1부 행사에 창열 회장은 내,외빈 소개에서 대중중 철수 회장, 현덕 고문과 대구 표충재종중 회장 동선, 용산단종중 회장 용환, 광주전남 화수회장 사현 등 각 지역에서 동행한 임원을 소개하고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9, 10대 현웅 회장을 비롯한 판사공과 중회 회장 영목, 문희공과 김해주춘 중회장 명철, 제정공과 낙진당 영모재 원지회 중회장 찬철, 영모재 덕청회장 상식, 낙진당 창선당 중회장 영일, (재)경백문화재단 총무이사 대철, 경백사 회장 겸 사천화수회장 현권, 창원화수회장 희철, 진주화수회장 명식, 거창화수회장 재철, 밀양화수회 사무국장 영갑, 울산화수회장 동수와 각 지역 임원 등 참석한 중원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이어 옥균(94세), 용인(86세) 고문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부경대 1학년 희웅 군에게 장학금 100만원과 장학증서가 수여되었다.

회장 인사말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과 중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공로패를 받으신 고문님과 장학증서를 받은 희웅 학생에게 축하를 전하고 ‘고려개국 1등 공신인 훌륭한 지략과 탁월한 무예를 두루 갖추신 시조 장절공 신승검 장군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계승 발전 승화시켜나가도록 하자고 하였고. 이어 격려사에서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은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 시조님의 충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민통합과 공정한 대한민국은 물론,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진정한 독립 국가가 되고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계승 발전 승화시켜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세운철강은 포스코 최대 가공센터로 작년 1조 천억 매출을 올린 중견기업으로 부산·경남화수회 후원자에 게재되어 우리 중원들의 위상을 제고(提高)하였다.

대중중 철수 회장은 ‘부산,경남화수회 54년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 회의 역대 회장님과 임원님들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고 새롭게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한다면서 대중중 회장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정직하고 공평한 원칙으로 대중중을 운영하고 낮은 자세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노력과 몇 사람의 의견에 휘말리는 종중이 아니라 모두의 뜻을 모아 종중이 운영되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어 용산단종중 회장 용환, 대구 표충재종중 동선 회장 축사에 이어 본회 현웅 명예회장의 덕담이 있었다.

이어, 경과보고와 재무국장의 예산 결산보고, 상명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였고, 창원화수회 경숙(제정 33세) 부회장은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어머니를 그리며’ 詩낭송을 통해 어머니의 애뜻하고 사모(思母)하는 정을 느끼게 하였고 경백사 현권 회장(사천화수회)은 ‘제54차 부산·경남화수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며’“천년의 장절공 숨결 부산에서 피어나네~”라는 詩 즉자를 만들어 창열 회장께 전하며 낭송하자 모두가 축하와 격려의 박수가 있었다

끝으로 행사장 입구에서 방명록을 비치하고 중원 간 소통과 배려를 위해 수고한 집행부 상규, 상명 감사, 동일 재정국장, 영석 문화국장, 행수 사무차장, 현혁 운영위원들이 인사를 한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2부 행사는 상명 감사의 주관으로 해암뷔페 식사와 더불어 여흥을 즐기는 ‘平山申氏 평화와 번영’이라는 축하 마당을 열어 푸짐한 경품추첨과 함께 노래와 흥을 돋게 하여 참석한 중원들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면서 기념품을 받아 들고 아쉬운 여운을 남기며 폐회하였다.

광주·전남화수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사현 회장]

4월12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 데일리하우스 무궁화홀에서 중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시낭송동아리 담쟁이 회원들이 시극과 현남(33세) 종의 아코디언

이 연주되는 가운데 대중중(철수 회장), 한성윤공과(형식 회장), 표충재종중(동선 회장), 부산경남화수회(창열 회장), 진주화수회(명식 회장), 창원화수회(희철 회장), 문희공과 백은공종중(정현 회장), (주)

부성전기(홍현 대표이사), (주)신형(태현 대표이사)가 보낸 화환이 식장을 아름답게 장식한 가운데 벽면에는 “고려개국 1등공신 평산신씨 시조 장절공 신승겸 장군님을 현창합니다.”라는 대형 플랜카드가 참석하신 종원들이 평산신씨라는 자부와 긍지를 느끼게 하였다. 행사는 제1부 기념행사, 제2부 오찬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현 회장의 개회 선언 후, 용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님과 조상님에 대한 망배에 이어 내빈 소개와 참석한 종원 간 인사를 하였다.

사현 회장은 제69회 정기총회를 맞아 용산단지 2집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장 현덕(대중중 고문), 간사 영걸(화수회 감사), 군화수회와 백운공중중 발전에 기여한 규현(해남화수회 부회장), 재현 광산구 화수회 사무국장을 표창하고 효(孝)를 실천한 두식 종에게 효행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전통상품권과 꽃다발을 시상했다.

회장은 인사말에서 1956년 본회가 처음 출범한 이후 오늘까지 어려운 여건에도 화수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 그리고 유적지중중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내년 2025년도 7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성대하게 행사를 준비하겠다 하고 멀리서 행사를 빛내주신 현만(서울), 명식(진주), 행수(부산), 동복(남원) 종에게 감사를 하였다.

이어 진주화수회 명식 회장의 축사와 현만 경기도 화수회장의 격려사가 있는 후, 용철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감사(영걸, 동우)보고 후, 의안을 상정하고 2023년도 결산 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타 결의사항으로 형철 원로께서 덕양서원 후록(後麓)에 있는 임야는 절대로 임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회장은 계마석과 태안사 입구에 있는 영적비각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음을 전남도와 곡성군으로부터 통보 받았음을 공지하였다.

현성금 내역

이름	주소	성금품	이름	주소	성금품
대중중		500,000	은균	광신대 부총장	100,000
용산단 중중		500,000	동수	광주전남화수회 부회장	100,000
덕양서원		500,000	동언	장군단 도유사	100,000
현만	문화공도유사	300,000	기안	광산구 화수회장	100,000
근성	여수시 화수회장	200,000	영걸	광주전남화수회 감사	100,000
창문	목포시 화수회장/화수회	200,000	용철	광주전남화수회 사무국장	100,000
언창	영광군화수회	200,000	미현	광주 화정동	100,000
창열	부산경남화수회	200,000	국현	나주 남평	100,000
형철	전회장, 명예회장	150,000	동복	남원	100,000
형식	한성윤공회장	150,000	진기	광주 동천동	100,000

현년	전회장, 명예회장	100,000	동식	광주전남화수회 부회장	100,000
현덕	전회장, 명예회장	100,000	동길	광주	100,000
한성윤공	선원공 종친회	10,000	규현	해남백은공 총무	100,000
명식	전 용산단 도유사	100,000	동우	광주전남화수회 감사	100,000
영철	영암군화수회	100,000	상남	전 광주전남화수 회장	100,000
재준	무안군화수 회장	100,000	명식	진주화수회장	100,000
정용	서울시화수회 회장	100,000	용환	광주	100,000
재현	광산구화수회 총무	100,000	명식	전 용산단도유사	100,000
하섭	전 장군단도유사	100,000	권현	광주	50,000
성호	함평군화수회장	100,000	현구	나주 남평	50,000
수정	광주시의원	100,000	광재	광주	50,000
소계		3,800,000	소계		1,950,000
			합계		5,950,000

영덕군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영덕군화수회(회장 의호) 정기총회가 4월 27일 11시 영덕군 영덕읍 소재 유림회관에서 종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명종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인사, 축사, 격려사, 감사보고, 전년도 결산 승인 및 2025년도 예산(안) 승인, 기타 의안처리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는 일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수 돈목하는 자리이니 그동안 소원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수 고문은 격려사에서 90년도에는 약400여명의 종원들이 함께 춘천 장절공 향사에 다녀온 때도 있었다며 그 때를 회상하며 우리 영덕군 화수회가 앞으로 모든 종원들이 단결하여 그 때와 같은 시기를 다시 한번 만들자고 말했다.

신정희 군의원은 단상 앞에 나와 앞드려 큰 절을 올리며 종원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이어 식순에 따라 현배 감사의 감사보고, 전년도 결산 승인 및 2025년도 예산(안) 승인, 기타 의안처리로 진행되었고 장산 신돌석(본명 泰浩)장군 숭모

위원회에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의한 후,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마쳤다.

『기획 시리즈』

제8편 사간공파 정간공 가상 종중 이야기

입향조 : 사간공파 23세 諱 계천(繼天)

입향 시기 : 약 400여년 전 1600년대 초기

15세 사간공 호(浩) - 16세 경종(敬宗) - 17세 수복(守福) - 18세 영화(永和) - 19세 변(棼) - 20세 응상(應祥) - 21세 세의(世義) - 22세 경창(景昌) - 23세 次子 계천(繼天) - 24세 여주(汝珠) - 25세 명국(命國) - 26세 사경(思敬), 사평(思平) - 27세 사경의 長子 옥(旭), 次子 명(明)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는 팔공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뒷산에 오르면 팔공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대부분이 야트막한 산들이고 마을 한가운데로 삼부천이 흐른다. 넓지는 않지만 마을 주변에 아주 비옥한 논밭이 있어 살기 좋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가상리에는 자연부락이 큰마을인 가래실과 독조(좌)골, 명산골, 모산 등이 있다. 우리 평산신씨 일족은 가래실에도 흩어져 살고 있지만 대부분 가래실 아래쪽에 있는 독조(좌)골에 집성촌을 이루어 400여년 동안 오순도순 정겹게 살아오고 있다. 한때는 수십 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10여 가구가 마을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산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우리 마을에도 덮치고 있음을 실감한다. 과연 언제까지 선산에 흩어져 있는 산소를 지키고 마을의 역사를 이어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상리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약 500여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추자나무의 숲이 무성하여 가래실(楸谷 추곡) 이라고 하였다 한다. 경상북도 지명유래 총람(1984)에 따르면 “독조골(獨造谷)은 가래실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홀어머니가 이곳에서



[입향조 휘 계천의 묘역]

좌골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홀로 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와 또 평산신씨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하여 독조골 또는 독

가상리의 위치는 영천에서 신녕 방면으로 가는 길과 영천에서 청송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있다. 아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은 것은 외부에 노출을 피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실제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도 이곳은 난을 피할 수 있었다. 지금은 새만금포항고속도로(대구-포항)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화산 JC가 마을 입구에 건설되어 있고 2011년 '마을미술행복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술마을로 재탄생하여 “영천별별미술마을”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입향조이신 23세 諱 계천(繼天)의 5대조이신 18세 諱 영화(永和)는 사헌부 감찰, 보은현감 겸 청주진관병마절제사, 도총위를 지내시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점골)에서 여생을 보내시고(평산신씨 천년사Ⅱ 권 638쪽 참조) 長子이신 19세 4대조 諱 변(棼)은 1519년 지평(持平)을 거쳐 황해도 도사(都事)가 되었고 병조좌랑,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었는데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신등은 의리로 보아 직에 나갈 수가 없으니 원컨대 저희 머리를 잘라서 간사한 자들의 마음을 흡족케 하소서”하고 파직되고 1521년 동생조(措)와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지란불고죄로 누명을 쓰고 장사(杖死)를 하시고 명종 21년 신원이 복관되어 이조판서로 추증되어 효종5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윤계서원(경기도 문화재로 제 18호)에 배향되고 시호가 정신공(貞信公)이다, (평산신씨 천년사Ⅱ 권 640쪽 참조) 20세 諱 응상(應祥)은 봉정사 직장(奉靖事 直長)을 지내시고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증직되었고, 21세 諱 세의(世義)는 諱 응상(應祥)의 次子로 봉사군자정(奉事軍資正)을 지내시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증직되었다. 22세 長子인 諱 경열(景說)은 가평 달전리로 이거하여 가평 낙향조 이시고 次子이신 諱 경창(景昌)의 슬하에 23세 휘 자천(自天) 長子이고 墓는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점골)에 모셔져 있고 次子 諱 계천(繼天)이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입향조이시다.

공은 조선 14대 선조 계묘년(1603년) 생이다. 호는 월사(月沙)요 실천궁행(實踐躬行)에 힘써 문학과 덕행으로 당세에 추중(推重)을 받아 집의(執義)에 이르렀으나 무옥(誣獄: 죄가 없음에도 죄를 다스림)으로 참화를 입어 인조 신사년(1641년) 향년 3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고 후손들의 적극적인 탄원으로 조정을 움직여 신원이 복관되어 자헌대부 이조참판에 증직 되었으며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입향조께서는 당시 영천이씨 할머니와 혼인하

여 영천으로 이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족보를 보면 배(配)가 영천이씨이고 묘(墓)는 영천군 봉한산 자좌로 쌍분으로 기록되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현재 영천이씨 시조공(諱 文漢) 제단소가 건립되어 있다. 영천이씨를 본관으로 하는 시조 이문한은 고려시대 평장사를 지냈으며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동성마을)로 입향하신 분은 임진왜란의 병으로 활약한 이간(李幹)(1576 ~ 1637)이다. 동 시대 가상리 입향조이신 휘 계천 祖와 조비(祖妣)께서 졸하시어 영천이씨 선산으로 모셔지고 그의 아들이신 휘 여주 조(祖)께서 어릴 적에 독조(좌)골로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흥택의 실전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던 후손들이 2014년 유허에서 초혼하여 입향지인 독조(좌)골 후산으로 천장하였다. 공개서 400여년 전 입향할 당시는 임진왜란 후 광해군이 즉위하고 인조가 왕권을 이어가는 동안 봉당정치와 병자호란이 발생하는 등 혼란과 격랑의 시기였다. 아마 입향을 하게 된 계기도 시대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24세 여주(汝珠) 할아버지는 입향조의 長子로서 인조 갑자년(1624년) 생이시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범인보다 뛰어나며 문사가 일찍이 성취되었으며 장성해서는 친명으로 벼슬에 점쳐서 집의(執義)에 이르렀다.

아버지인 입향조의 사망 당시 17세의 나이로 집안 가도가 몰락하자 벼슬길에 뜻을 끊고 가족을 이끌고 독조동으로 이주하여 땃집(지붕을 따로 이은 집)에서 두문 잠적하며 시(詩)와 서(書)로 전업을 삼고 어초로 생활을 하며 분수에 벗어난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리(踐履) 몸소 실천(람)의 공정을 일생의 용력으로 삼았다. 간혹 등산을 하고 시가를 운율에 따라 읽기도



[원후정 遠厚亭]

하고 반환(盤桓)하면서 세상 근심을 녹아 보내니 그 은덕 독행을 가히 상상해 볼 수 있다.

숙종 병인년(1686년) 63세로卒하였다. 대박골 안산에 모셨으나 2014년 상주영천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도로에 편입되어 부득이 독조골 선산으로 천장(薦狀)하였다. 여주 할아버지의 덕행이 독조(좌)골의 지명 유래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도 미루어 짐작도 해 본다.

25세 諱 명국(命國) 공은 입향조의 손자이시며 임오생으로 경신에 졸하였다. 슬하에 26세 사경(思敬), 사평(思平), 사량(思亮)을 두셨다. 27세

사경의 長子 옥(旭)은 증(贈) 중추(中樞)이고 次子는 명(明)이다. 공의 증손 광진(光晉)은 관(官) 통덕랑(通德郎)이고 광숙(光肅)은 이조참의(吏曹參議)이고 고손 재숙(在淑)은 호군(護軍)이고 재형(在亨)은 형조정랑(刑曹正郎)이다 28세 광숙 공의 슬하에 재진(在鎭), 재은(在隱), 재한(在漢)이 있고, 매년 봄 원후정 재실에서 광숙(光肅) 공의 후손들이 모여 총회를 하고 일족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정월달에는 입향조 후손들이 모여 문중총회를 열고 8월에는 묘제를 봉행하고 있고 次子인 27세 諱 명(明)의 이하 후손은 영천 금호에 주미공원을 조성하여 매년 음 10월 2주차 토요일에 향사와 총회를 한다. 아울러 입향조 정간공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이곳 영천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과 전국 경향각지에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며 선조의 혼맥(魂脈)을 이어가고 있다.

[사간공파 정간공 가상중중 35세 상환]

『기고』

선조의 벼슬이 아닌

삶을 남기자

신범수(申範秀, 正肅公派 31世, 아시아경제 편집국장)

종보를 읽는 우리의 걱정은 한결 같다. 조상을 모시고 가문을 중시하는 전통이 후대에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말이다. 어떻게 하면 자식과 후대들이 자랑스러운 집안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강조하고 설명해도 귓등으로 듣지 않는 자식들, 그러나 시대는 강요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대로 모든 것이 잊혀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해낸 방법은 집안 내력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소책자로 남기는 것이었다. 너무 자세한 정보나 한자로 된 원문까지 담을 필요 없이 커다란 줄기만 소개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야 어린 후손들이 부담 없이 책을 펼쳐볼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간단한 작업일줄 알았는데 막상 글로 정리하자니 필자 지식 사이에도 빈틈이 많았다. 수많은 자료를 뒤져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공식적인 증거를 제시하자니 2년이 넘게 걸렸다. 가윗일로 해서 그런 것인데 집중한다면 몇 달이면 될 일이긴 했다. 그렇게 60페이지 책이 완성됐다. 이 책 한 권이면 기억해야 할 정보들은 물론, 지금 후손의 삶을 이루는 면면이 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됐는지 입체감 있게 파악된다고 자부한다.

물론 이야기를 어떻게 엮을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필자가 택한 방식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니 각자 사정에 맞게 정리하면 된다. 일단 필자는 시조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조상을 나열하고 그들이 얼마나 높은 벼슬에 올랐는지 소개하는 것으로 후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보다는 각 조상의 삶과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연결하여 맥락 있는 이야기로 꿰는 게 낫다고 봤다. 어떤 조상은 역사의 중앙 무대에 있기도 했지만, 많은 조상의 삶은 실재론 평범했다. 그러나 그가 누구라 해도, 시대의 흐름에 영향 받지 않는 삶은 없다.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훌륭한 드라마다.

필자가 속한 파의 파조는 15대 정언공 신효다. 정언공 묘소는 행주산성 부근인 경기도 고양시에 있다. 직계 조상으로 16대 신자계, 17대 신세경 묘소도 주변에 모여있다. 18대는 신흥서인데 멀지 않은 고양시 사리현동이 묘소 위치다. 각 위치가 최초 조성된 곳인지 이장 이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나, 어쨌든 정언공 이후 필자 직계 조상들이 대대로 행주 지역을 본거지로 삼아온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19대 이후 산소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다. 19대는 1500년대 사람인데, 어떤 중대한 계기가 있지 않고선 조상들의 묘소가 모인 고향 땅을 떠나 타지에 묻힐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19대 7명과 그들의 후손 묘소 위치를 모두 찾아보니,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행주 땅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19대 신흥서를 포함해 그의 둘째 아들과 그 장남 등 총 3명이 같은 해에 작고했다는 사실도 처음 접했다. 때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다.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향한 일정과 일본군의 북진 경로 등을 조사하고 당시 양반들의 일반적 피난 방식 등을 여러 역사책으로 확인해봤다. 행주 지역은 일본군 이동 경로에 있으니 매우 위험했을 것이다. 게다가 선조가 평양으로 도주하게 된 계기는 신립 장군의 탄금대전투 패배인데, 행주에 살던 19대 신진 형제들은 신립 장군과 12촌 관계였다. 당시 큰 벼슬을 하고 있으며 탄금대전투에도 참여한 신희과는 4촌지간이었다. 이런 친인척 관계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18대 신흥서 일가 자식들은 인천, 충주, 덕소, 가평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그곳을 제2의 고향 삼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세월이 흘러 우리 조상 중 일부가 다시 덕소를 떠나 가평까지 들어간 사실, 가평에 평산 신씨 집성촌이 생기게 된 연유 등을 하나씩 고증해 나갔다. 영의정부터 도승지 등 고위 관료들이 준비하던 양반집 후손들은 가평을 고향 삼아 이후 400여년을 살았고, 이들이 평범한 농민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추론해볼 수 있었다.

그렇게 가평 땅에 뿌리내린 평산 신씨 정언공과 후손들에게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찾아온다. 다음 아닌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도시화 현상이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 성공하고, 자식에게 현대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무작정 상경에 나섰다. 필자 가족뿐 아니라 많은 친인척들이 현재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게 된 계기다. 이들이 서울에 정착해 겪은 70, 80년대 이야기들은 지금 청년들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까운 역사다.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진왜란이나 구한말 혼란기, 일제강점기, 해방, 6.25전쟁, 유신시대 등 굵직한 변화의 시절을 살아낸 우리 조상의 삶을 재구성하고 이야기로 묶는 작업은 필자로 하여금 몰랐던 사실들을 여럿 발견하게 해주었다. 집안 어른들을 만나 과거로부터 전해져오는 일화들을 확인하며 대화를 나눈 경험도 좋았다. 그렇게 완성된 소책자를 읽는 후손들 역시 '출세한 조상'을 중심으로 가문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닌, 평범한 시대를 관통한 선조의 개별 삶을 접하며 집안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자신의 생존과 행복, 소중한 가족의 형성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결정이 결합됐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런 개개인의 위대한 역사를 되새기는 일은 흔히 접하는 경험이 아니다.

집안에 이런 작업에 흥미를 갖거나 정보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작업을 맡겨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기를 추천한다. 후손들 입장에서 모든 설명을 쉬운 현대어로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완성된 원고는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소장용 책 출판' 업체에 맡기면 된다. 필자는 60페이지에 사진 수십 장, 40권을 찍어내는 데 30만원 정도 소요했으니 그리 부담되는 일도 아니다. 더욱이 당장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후손들도 수십 년 후 나이가 들어 뿌리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난감해 할 수 있으니,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종원동정

청와대 경호실 근무한 현구 종이 기부한 청남대 소품으로 보는 대통령 일상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청주소재)에 역대 대통령 5명이 남긴 소품을 전시한 현구(鉉九)(문화공 33세손) 宗은 부친 원균(元均)과 모친 순흥안씨(順興安氏) 사이 4남3녀 중 차남이다.



[청남대 기탁물품 상설 전시관]

1980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 입사하여 2003년 퇴직시까지 23년간 대통령 5분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

무현) 모시고 대통령 경호실 퇴직 후, 청남대 운영팀장으로 재직 중 2015년 이명박 대통령 청남대 방문시 영접 및 수행으로 6분의 대통령을 모셨다.

현구 宗은 경호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국내외 행사 계획과 현장 경호업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대통령 행사 기념품, 경호행사 배지, 청와대 방문 기념품 등 대통령 일상 관련자료 600여점을 충청북도에 기증하였다.

충북 도지사(이시종)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같이 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청남대에 “매봉 신현구 기탁물품 특별전” 상설전시관을 설치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구 宗은 재직 중 대통령 표창, 녹조근정훈장, 장관, 도지사 등 다수의 표창과 감사패 수여 받았고 한문과 서예를 익혀 전국휘호대회 추사체 부문 문화부장관상 수상을 비롯 여러 관련단체에 공모전에서 표창을 수상하였고 초대작가와 추사체 연구 및 관련단체에 활동하고 있고 금년 10월 2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절지도사로서 인성교육을 위해 청주향교 등,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수정(水晶) 종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



[수정 의장]

수정(水晶)宗은 이상공과 33세손으로 전남 장흥군에서 아버지 명수(明洙)와 어머니 언양 김향금(彦陽 金香今)의 1남 1녀중 장녀로 태어나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5, 6, 7대), 전)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 초대회장, 광주광역시의회 8대 의원시 환경복지위원장, 9대 의원시 전반기 교육문화위원장을 역임하고,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신의장은 당선 소감으로 광주시민께서 선택

택해 주신 의원으로서 오로지 145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내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약속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삶의 현장에 머물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의 정치로 능력있고 일할 줄 아는 신수정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사

춘천 묘역관리소장 퇴임 및 보임



묘역관리소장 퇴임

신현택(申鉉澤)

- 춘천시 서면 신승검로
- 보(補) 2002년 9월 1일
- 면(免) : 2024년 5월 31일



묘역관리소장 보임

신현목(申鉉睦)

- 춘천시 서면 신승검로
- 보(補) 2024년 6월 1일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안내

2024년도 선정된 대중중 장학생 2학기 장학금이 8월 20일 전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학생은 재학등명서, 1학기 성적증명서, 각 1통을 8월 9일까지 보내시고, 장학금을 수령하면 학교에 수납하고 등록금납부확인서(사본)를 9월 14일까지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미등록이나 성적 미달자(전 성적보다 10% 이하)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조장절공 추향대제 안내

2024년도(갑진년) 시조님 추향대제가 10월 11일(음 9월 9일)입니다. 각 파종중, 소문중 및 시도화수회 예하시, 군, 구화수회에서 홍보하여 많이 참례해주시고, 특히 향사 준비를 위해 10인 이상 참례하시는 각 문중 및 화수회 단체는 참석인원을 9월 30일까지 대중중(문화국장 010-6522-6700)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행사 : 영당의식(07시), 묘제봉행(11시)

○ 장소 : 춘천시 서면 신승검로 272-21 (신승검묘소)

2024년 8월 ~ 11월 행사 안내

- 8월 20일 : 2024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9월 13일 : 제례 · 계보위원회 개최(예정)
 9월 20일 : 덕양서원 향사(음 8월 중정일)
 10월 3일 : 모영재 향사(음 9월 1일)
 10월 6일 : 송의전 추향대제
 10월 11일 : 춘천추향대제
 10월 20일 : 용산단 추향대제
 10월 21일 : 한성윤공파조 향사(음 9월 19일)
 10월 25일 : 종보 203호 발송(예정)
 11월 1일 : 밀직공, 봉상윤공, 장령공, 현령공, 문희공, 정언공, 진사공파조 향사
 11월 4일 : 판사공파조 향사
 11월 5일 : 사간공파조 향사
 11월 9일 : 판윤공파조 향사
 11월 10일 : 이상공파조 향사

종보 성금 보내주신 분 (2024. 04.16 ~ 06.30)

성금을 보내주신 종원님께 감사드리며,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개 인

세호(경북 봉화)	20,000	용구(서울 중랑구)	20,000
정주(대구 북구 유통단지)	20,000	현덕(서울 광진구)	30,000
민태(서울 관악구)	20,000	구영(서울 중랑구)	20,000
철호(경기 남양주시)	30,000	정섭(경기 성남시 분당)	30,000
태일(서울 중랑구)	100,000	영식(경기 가평 설악)	50,000
현수(경기 의왕시)	30,000	승수(광주 사하로)	20,000
승동(경기 과천)	20,000	철민(문희)	10,000
장현(서울 은평구)	30,000	현일(경기 여주)	20,000
진욱(사간)	10,000	용덕(알수없음)	50,000
영숙(대전)	20,000	현식(전북 익산)	20,000
주생(전남 진도)	20,000	현식(경기 곤지암)	40,000
동성(경남 창원)	20,000	기한(경기)울산 범서	35,000
준섭(서울 강서구)	20,000	정섭(서울 서초구 신반포)	50,000
현식(경기도 의정부)	20,000		

파종중

제정공파 종중 100,000

시·도화수회

부산경남화수회 100,000 대구경북화수회 100,000

소종중

정언공파자산종중 50,000 정언공파학운공종중 50,000

시·군·구화수회

광주 광산구화수회 50,000 진해시화수회 20,000
 속초시화수회 100,000 고창군화수회 100,000
 영천시화수회 100,000 파주화수회 50,000
 서울 중랑구(동철) 50,000

총 계 : 1,665,000원

원 고 모 집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선조들에 관한 글이나 종중행사, 미담, 시, 수필 등 문예작품, 건설적인 제안 등 종보 190호 부터 기획시리즈 “삶의 뿌리 아! 아버지”를 각 문중의 세거지, 집성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보를 발간하는 것은 종중의 역사를 쓰고 전통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 질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낼 곳

우 편 : 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FAX : 02)776-7990
 E-mail : pyongsan777@naver.com

바로잡습니다.

종보 200호 10쪽 上 24 회 자승(自繩)의 장자 ⇒ 차자
 종보 201호
 2쪽 단체 성금 우 4줄 현령공 종중 10만원 (비고란 삭제)
 6쪽 표창자 (祥燮) 사간공파 ⇒ (点燮) 밀직공파,
 추천 표창재종중 ⇒ 밀직공종중
 7쪽 우하단 장학생 신경호 이상공 ⇒ 정언공
 9쪽 정언공파종중 장학생 누락 연세대 경훈
 16쪽 개인 성금 은미(알수없음) ⇒ 춘천
 영덕군화수회 ⇒ 영양군화수회 10만원
 (알수없음) 10만원 ⇒ 충주시화수회 10만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종중·시·군·구화수회 : 20부 년 50,000원
-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농 협 301-0202-9520-11 (평산신씨 대종중)
 전자대동보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종중)
 우 리 1005-103-123259 (평산신씨 대종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 송금시 :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